

中國語 “入聲”의 聲調的 價値 再考

朱星一*

◁ 목 차 ▷

- | | |
|------------------|-----------------------------|
| I. 緒論 | IV. 韓國 朝鮮時代 語音學者들의 漢語 入聲 處理 |
| II. “聲調”의 性質과 入聲 | V. 現代漢語 方言의 入聲 |
| III. 古代漢語 入聲의 押韻 | |
-

I. 緒論

中國語의 모든 音節은 聲母와 韻母 그리고 聲調를 지닌다. 특히 聲調는 음절 내부에서 일어나는 高低升降의 變化로서, 다른 언어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성질이며, 中國語를 聲調言語라고 할 만큼 聲調는 中國語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不可缺한 요소이다. 聲調는 聲母와 韻母가 같은 조건에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 중요한 辨別的 기능을 지닌다. 예를 들어 現代 標準 中國語, 즉 普通話에서 “媽, 麻, 馬, 罵”는 모두 /ma/라는 聲母와 韻母로 결합되어 발음되지만 각각 陽平, 陰平, 上聲, 去聲이라는 어음의 일정한 高低昇降, 즉 聲調를 가짐으로써 각각의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聲調의 音價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中國의 傳統音韻學에서는 일반적으로 普通話의 네 가지 聲調는 古代漢語의 네 가지 聲調, 즉 平聲, 上聲, 去聲, 入聲으로부터 發展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中國의 傳統 音韻學에서는 入聲을 하나의 독자적인 聲調로 보아왔으며 現代漢語 方言의 聲調 分類에도 전통적인 思考에 준하여 入聲을 독립적인 聲調로 다루고 있다.

“四聲”에 관해 언급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은 중국 南北朝 시기의 沈約(441~513)의 《四聲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聲調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인 研究가 진

* 경주대학교 관광외국어학부 중국어전공

행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야 비로써 가능했다. 清代 以前の 기록을 보면 唐代의 처충(處忠)은 《元和韻譜》에서 「입성은 촉급하다(入聲急而促)」¹⁾라고만 기술하고 있고, 明代의 진공(真空)은 《玉鑰匙歌訣》에서 「입성은 짧고 급하게 거두어 들인다(入聲短促急收藏)」²⁾라고만 기록하고 있어 入聲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清代에 이르러 古音學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聲調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研究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과학적인 방법으로 聲調의 性質을 研究하기보다는 傳統 音韻學에 근거한 聲調의 分類가 研究의 主流였다. 특히 入聲의 性質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또한 기록에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古音學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고염무(顧炎武) 역시 聲調의 성질을 音節의 長短과 輕重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어음은 완급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 그 음이 무겁고 급한 것이 입성, 거성, 상성이며 그음이 가볍고 완만하면 평성이 된다.(五方之音有遲疾、輕重之不同, …… 其重其遲則爲入、爲去、爲上, 其輕其疾則爲平。)³⁾

평상거입의 명칭은, 한대(漢代)까지도 없었다. …… (음의 길이가) 긴 것은 평상거성이요, 짧은 것은 입성이다.(平上去入之名, 漢時未有, …… 長言, 則今之平上去聲也; 短言, 則今之入聲也。)⁴⁾

평성은 음이 길고, 입성은 음이 짧으며, 평성 글자는 많고 입성 글자는 적다. 긴 것이 많고 짧은 것이 적은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平聲音長, 入聲音短; 平聲字多, 入聲字少, 長者多, 短者少, 此天地自然之理也。)⁵⁾

中國의 傳統 音韻學에서는 音節을 韻尾의 性質에 따라서 開音節은 陰聲韻, 鼻音韻尾는 陽聲韻 그리고 塞音 韻尾 즉 無聲破裂音 계열의 韻尾를 가진 音節을 入聲韻으로 분류하고 있다. 入聲에 관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급하고 빠르다(促急)」라는 것인데, 이는 聲調에 대한 설명이라기 보다는 入聲字의 入聲韻尾에 대한 보편적인 性質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音의 長

1) 《古漢語知識詳解辭典》, 中華書局(中國), 1996年, 244쪽

2) 《古漢語知識詳解辭典》1996年, 中國, 中華書局, 244쪽

3) [清]顧炎武(音論·卷中·古人四聲一貫), 中華書局1982年版, 40-41쪽

4) [清]顧炎武(音論·卷中·古人四聲一貫), 中華書局1982年版, 41쪽

5) [清]顧炎武(音論·卷中·入爲閏聲), 中華書局1982年版, 43쪽

短을 기준으로 聲調의 性質을 파악한 위와 같은 思考들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清代 古音學者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으며 단지, 上古音 聲調의 분류에 있어서만《詩經》등 古書의 押韻 상황을 근거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入聲의 聲調論적 價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 서방언어학이 중국에 보급되면서부터였다. 劉復의 《四聲實驗錄》(1924年)에서 기계실험을 통해 聲調의 本質이 음높이(音高)에 있음이 밝혀지면서 入聲에 대한 성조론적 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학계의 일부에서는 入聲을 聲調가 아닌 入聲韻 韻尾의 각도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胡適의 《入聲考》(1929年)에서 “入聲이란 韻母가 -k, -p, -t로 끝나는 韻尾의 聲韻을 말한다(入聲是韻母收聲於-k, -p, -t三種韻尾的聲韻)”이라 하여 入聲이 근본적으로 “聲韻”의 문제임을 시사하였으며, 岑麒祥의 《入聲非聲說》(1934年)에 이르러서는 “入聲은 독립적인 聲調로 볼 수 없다”라 하여 직접적으로 입성의 성조론적 가치를 부정하였고, 黃伯榮은 《陽江話“入聲非聲”實驗報告》(1960年)에서 陽江 方言의 音聲 實驗結果를 토대로 岑麒祥(1934年)의 “入聲非聲說”을 지지하였다.⁶⁾ 80년대에 들어서서, 宗福邦은 《論入聲的性質》(1984年)에서 입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총 망라하고 入聲을 保有하고 있는 몇 개의 方言에서 그 音高가 기타 聲調와 동일함 등을 들어 入聲이 聲調로서 독립할 수 없음을 매우 과학적으로 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에도 불구하고 現代 中國 音韻學과 現代 方言의 聲調 分流, 심지어 現代 語音學에서조차 入聲을 聲調로 간주하려는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심지어 上古 漢語에서 中古 漢語로 넘어가면서 聲調를 본질을 決定하는 基準 자체가 語音의 長短에서 語音의 높낮이(音高)로 바뀌었다⁷⁾는 등 聲調의 概念 자체를 뒤흔드는 애매모호한 主張도 나오고 있다.

본 論文은 기존의 研究와 몇 가지 본인의 초보적인 見解를 통해 역대 中國語의 聲調 分流에 아직도 당당히 입지를 굳히고 있는 入聲이 聲調로서의 명분과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들에 一見을 보태려고 한다.

6) 〈論入聲的性質〉, 《音韻學研究》第1輯, 1984, 455-470쪽 참조

7) 許寶華, 〈論入聲〉, 《音韻學研究》第1輯, 1984년, 436쪽 : “上古漢語的聲調主要由音長來決定但也一定有音高作爲其伴隨特徵……聲調發展至中古改以音高爲主要特徵, 音長爲次要特徵”

II. “聲調”의 性質과 入聲

聲調(tone)란 각 音節의 음높이 즉, 高低昇降을 가리킨다. 이러한 음높이는 일정한 시간내에 음파가 진동하는 주파수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말해 발음시 聲帶가 수축하고 진동이 빨라지면 청각적으로 소리가 높게 들리고, 발음시 聲帶가 이완되고 진동이 느리면 소리가 낮게 들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발음하는 과정에서 聲帶가 처음에는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게 되면 소리의 음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리의 음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聲調는 바로 이러한 소리내기의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音節의 高低昇降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聲調는 음높이가 가장 낮은 음에서 가장 높은 음까지의 일정한 변화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화 영역속에서 각각의 성조는 일정한 음높이와 굴곡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같은 聲調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음높이는 사람에 따라, 혹은 감정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내는 각각의 聲調는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어음체계에서 각 聲調는 그 높낮이와 굴곡에 있어서 기타 聲調에 대한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普通話 陰平聲의 실질적인 음높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普通話라는 어음체계 안에서 陰平聲은 늘 기타 성조인 陽平聲, 上聲, 去聲에 비해 높고 평평한 음이라는 상대적인 음높이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語音의 높낮이(音高)는 聲調(調類)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中國의 傳統 音韻學에서는 四聲을 “舒聲”과 “促聲”으로 구분하는데, “舒聲”이라 함은 陰聲韻과 陽聲韻의 平, 上, 去聲을 가리키는 것이요, “促聲”이라 함은 入聲운인 入聲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의 왕력(王力) 역시 古代漢語의 聲調에 대해 “舒促又分長短”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에 따르면 上古시기에 聲調는 서(舒)와 축(促)으로 대별되며, 서(舒)와 축(促)은 다시 각각 장단(長短)으로 분류되는데, 느슨하면서 긴 것은 平聲이요, 느슨하면서 짧은 것은 上聲이고,促急하면서 긴 것은 長入이요,促急하면서 짧은 것은 短入이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四聲에서 入聲과 平, 上, 去 三聲의 변별기준을 음의 높낮이가 아닌 “舒”와 “促”, 즉 韻尾의 長短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말하는 入聲과 기타 平, 上, 去 三聲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聲調상의 차이가 아니라 韻母 間의 차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音節의 구성요소 중 聲母와 韻母를 이루는 子音과 母音이 音質, 즉 發音

方法과 發音時 共鳴體의 상태등에 의해 구분되어진다면, 聲調는 超分節 音素로서 聲帶振動의 속도에 따른 어음의 高低와 昇降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聲調는 聲母와 韻母의 부가적 산물이 아니라 聲母 그리고 韻母와 함께 독립적으로 音節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것이다.

聲調의 分流 문제는 개개의 音節이 가지는 그들이 가지는 음높이(音高)와 굴곡(高低昇降)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中國의 古代 語音에서 陰聲韻과 陽聲韻이 각각 平, 上, 去 三聲을 가지고 있었다면 入聲韻 역시 실질적으로는 平, 上, 去 三聲 등 서로다른 한 개 이상의 聲調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어찌보면 陰聲韻과 陽聲韻 그리고 入聲韻 중 유독 入聲韻만이 획일화된 한 종류의 음높이를 가졌다고 여기는 것이 더욱 비합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韻尾가 짧고 급하게 발음되는 入聲韻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 개 이상의 음높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상배(羅常培)와 왕균(王均)은 《普通語音學綱要》(1957년)에서 「만약 한 언어 체계 내에서 모든 음절에 어의를 변별하는 음높이(音高)의 구별이 존재한다면, 이 언어를 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한다(假如一個語言的每一個音節都有相對不同的能辨別字義的音高區別, 這個語言就叫做有聲調的語言)」⁸⁾ 中國語를 聲調 言語라고 할 때 각각의 聲調는 바로 음높이 즉, 音高를 기준으로 歸納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陰聲韻과 陽聲韻, 陽聲韻과 入聲韻, 入聲韻과 陰聲韻이 각각 그 韻尾를 달리 하지만 동일한 음높이(音高)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聲調로 歸納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Ⅲ. 古代漢語 入聲의 押韻

中國 古代 詩歌에서 押韻을 많이 사용한 것은 詩를 지을 때 일정한 자리에 같은 韻에 속하는 음 혹은 비슷한 음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운율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같은 韻이라 함은 主要元音과 韻尾 그리고 聲調가 같다는 말로 古代의 語音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押韻은 우리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古代 詩歌의 각 聲調의 押韻 狀況을 살펴보면 같은 聲調끼리 즉, 平聲과 平聲, 上聲과 上聲, 去聲과 去聲 그리고 入聲과 入聲이 서로 압운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

8) 〈論入聲의 性質〉, 《音韻學研究》第1輯, 1984, 461쪽 참조 (原《普通語音學綱要》1957年, 中科學出版社)

은 비율을 차지한다. 사존직(史存直)은 《漢語語音史綱要》(1981年)에서 강유고(江有誥)의 《詩經韻讀》과 고염무(顧炎武)의 《詩本音》을 근거로 《詩經》의 押韻 狀況에 대한 전면적인 統計를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詩經》전체 1679개의 押韻 횟수 중 四聲별 압운 상황은 平聲과 平聲이 714회, 上聲과 上聲이 284회, 去聲과 去聲이 135회, 入聲과 入聲이 押韻하는 경우가 247회로 같은 聲調끼리 押韻하는 횟수가 1380회로 전체의 82.2%에 달한다고 했다.⁹⁾ 그 중 入聲의 押韻字에 관하여 고염무(顧炎武)는 전체 入聲의 押韻字 중 다른 서로 聲調와 押韻하고 있는 비율은 총 押韻字의 3할에 이른다고 하였는데¹⁰⁾ 전체의 3할이라는 영역을 두고 入聲 押韻의 例外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入聲의 押韻이 불규칙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見解일 것이다. 고염무(顧炎武)가 「사성이 하나로 통한다(四聲一貫)」고 한 것이나 강영(江永)이 상고 한어의 「입성이 거성과 가장 가깝다(入聲與去聲最近)」¹¹⁾고 한 것도 모두 《詩經》의 押韻 상황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말하는 入聲은 필연적으로 音節의 끝소리가 無聲破裂音 [-p][-t][-k] 혹은 喉塞音 [-ʔ] 으로 끝나는 형태소를 지칭해 왔다. 그렇다면 中國 古代 詩歌의 押韻 상황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入聲과 기타 聲調 간의 押韻 현상은 엄밀히 따지면 入聲韻과 기타 운 즉 陽聲韻 혹은 陰聲韻과의 押韻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고염무(顧炎武)가 말한 “四聲一貫”은 고대 시가의 압운에서 볼 수 있는 성조간의 通押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詩經》에서 聲調 간의 押韻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왕력(王力)은 “古無四聲”이나 “四聲一貫”이 후대의 서로 다른 성조의 글자들이 《詩經》에서 서로 압운하는 현상 등에 대한 압운 용례들이 바르게 분석하지 않았거나 상고시기의 聲調 체계와 중고시기의 聲調 체계가 서로 같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비판하고 있다.¹²⁾ 하지만 설령 고염무(顧炎武) 등의 일부 학자들이 上古 漢

9) 「《詩經》全部共有1679個押韻單位……四聲分押的押韻單位：平聲714，上聲284，去聲135，入聲三尾合計247，一共是1380個，在全部押韻單位中所占的百分比竟達到82.2%」

10) 〈시경(詩經)〉삼백편 중 간혹 입성자가 (압운자로) 쓰이는데, 입성이 입성과 압운하는 것이 7할 이요, 입성이 평성, 상성, 거성과 압운하는 것이 3할이다. (《詩》三百篇中，亦往往用入聲之字。其入與入爲韻者，什之七；入與平上去爲韻者，什之三。) [清]顧炎武《音論·卷中·入爲閩聲》，中華書局1982年版，43쪽

11) 「入聲與去聲最近，《詩》多通爲韻，與上聲韻者間有之，與平聲韻者少。」，[清]江永《古韻標準卷四·入聲第一部總論》，中華書局1982年版，73쪽

語의 押韻 用例들을 歸納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들은 일부일뿐 古代 詩歌에서 서로다른 聲調간의 押韻 현상은 여전히 보편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서로다른 聲調 간의 押韻 현상은 고대에 詩歌를 짓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원래 글자의 聲調 즉 음의 높낮이는 리듬에 따라 어느정도의 변조는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聲調 간의 通押현상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現代의 中國 노래에서도 제 聲調가 잘 지켜지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詩經》의 入聲字의 押韻에서 3할이 기타 聲調와 通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入聲韻의 글자들이 한 개 이상의 聲調를 가지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만약 그렇다면 所謂 入聲이 다른 聲調와 押韻하는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詩經》 入聲字가 押韻하고 있는 平聲, 上聲, 去聲은 대부분 陰聲韻이다. 職部와 之部, 覺部와 幽部, 鐸部와 魚部, 質部와 脂部 등이 押韻할 때 이들의 韻尾가 서로 달랐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聲調는 서로 같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古代 漢語의 入聲韻에 한 개 이상의 음높이가 있었을 수도 있음은 現代 漢語의 南方方言 入聲韻 중에 보편적으로 한 개의 음높이(音高)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아도 추론은 가능하다. 물론 漢語의 入聲韻尾는 유구한 세월을 거쳐 陰聲韻화되면서 그 語音의 음높이 또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지기 때문에 入聲韻이 지금 몇 개의 음높이로 나뉘어졌다고 해서 고대에도 입성운에 몇 개의 음높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광주(廣州)방언 등 입성운미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방언들에 한 개 이상의 음높이가 존재 한다는 것은 고대의 입성운에도 한 개 이상의 성조가 있었을 수 있다는 좋은 반증이 된다.

IV. 韓國 朝鮮時代 語音學者들의 漢語 入聲 處理

朝鮮時代 世宗 25年(1443年) 訓民正音이 창제된 이래 中國의 漢字音을 병음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中國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든 入聲韻尾의 音節들을 일괄적으로 入聲으로 분류한 데 대해 當時 朝鮮에서는 入聲韻의 音節들도 陰聲韻,

12) 「說古無四聲或四聲一貫,是因爲看見後代不同聲調的字在《詩經》中有互相押韻的情況,但是主張此說的人或者是誤解《詩經》的韻例,或者是不知道上古聲調系統和中古聲調系統有所不同」《王力文集·第6卷·詩經韻讀》,山東教育出版社, 31쪽

陽聲韻과 마찬가지로 平, 上, 去聲 등 三聲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당시 朝鮮에서는 聲調를 글자 좌측의 旁點으로 나타내었다.

《訓民正音》禮義篇에는 말하길,

「좌측에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둘이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인데, 입성의 가점은 (이들과) 같으나 축급하다(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

라고 기록하고 있다. “入聲加點同而促急”라고 한 말은 入聲의 旁點은 하나일 수도, 둘일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말로 기록에서는 비록 “入聲”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傳統 音韻學의 영향일뿐, 실제로는 “入聲”을 그 음높이에 의해 각각의 성조로 귀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訓民正音》合字解와 解例를 보면 조선시대 한국인들의 “入聲”에 관한 보다 명확한 見解를 엿볼 수 있다.

언문의 평상거입성을 말하면, (좌측에 점이 없는) ‘활’은 ‘弓’의 뜻으로 평성이고, (좌측에 두 점을 더한) ‘돌’은 ‘石’의 뜻으로 상성이고, (좌측에 점이 하나인) ‘칼’은 ‘刀’의 뜻으로 거성이며, ‘붓’은 ‘筆’의 뜻으로 입성에 속한다. 무릇 좌측에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다.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한데, 언문의 입성은 정함이 없어 혹은 평성과 비슷하고 혹은 상성과 비슷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한 것도 있어 그 가점 역시 평, 상, 거성과 같게 한다. (諺語平上去入, 如‘활’爲弓而平聲, ‘돌’爲石而其聲上, ‘칼’爲刀其聲去, ‘붓’爲筆其聲入之類, 凡字之左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 而文之入聲, 爲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或似上聲, 或似去聲, 其加點則如平上去同)

언문의 사성은 어떻게 변별하는가, ……어음은 좌측의 방점으로 사성을 구분짓는다. 점이 하나면 거성이고, 둘이면 상성이고, 점이 없으면 평성인데, 국어의 입성은 정함이 없이 점을 더하고, 한문의 입성은 거성과 흡사하다. (諺之四聲何以辨, ……音因左點四聲分, 一去二上無點平, 語入無定亦加點, 文之入則似去聲)

國語에서 聲調를 표시하는 방법에 旁點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入聲에 관한 國語와 漢文의 차이에 대해서도 言及하고 있다. 《訓民正音》 인용문들에서 “文”이라 함은 漢文을 의미하는 것이요, “諺”이라 함은 언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의 학자들은 入聲에 관해서 만큼은 양자를 달리 기록하였다.

이러한 入聲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와 같은 당시 中國語를 배우기 위한 會話 教本에서는 北方官話를 반영하고 있는 左側

音¹³⁾에 한 점을 찍어 去聲과 같은 성조표시를 하고 있다. 中國語음을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入聲을 따로 獨立시키지 않고 去聲과 함께 한 점을 찍어 표시한 것은 현실음을 가장 근사하게 내려는 조선 학자들의 注音 의지였을 것이다. 入聲을 獨立된 聲調로 보았다면 틀림없이 旁點을 사용하여 入聲만의 독립적인 표시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去聲과 같은 한 점으로 표기를 한 데서 우리는 당시의 중국어음을 注音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론 조선의 학자들이 中國의 入聲을 注音할 때 入聲 韻尾를 가진 音節이 그 韻尾의 특성상 워낙 促急하게 끝나는 음이었기 때문에 語音의 길이에 있어서 去聲과 가장 흡사한 점을 감안하여 中國語를 배우는 韓國人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처리였을 것이라고 본다. 入聲이 청각적으로 이미 거성과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지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의 범례에서 “去聲入聲一點”이라 하여 去聲과 入聲을 대등하게 따로따로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語과 中國語의 入聲韻尾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그 聲調에 있어서는 양자의 入聲을 달리 描寫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리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실제로 中國의 古代 詩歌에서도 入聲이 기타 성조와 압운하는 경우 去聲과 押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음의 길이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우리는 古代漢語의 去聲 역시 음의 길이가 現代漢語와 마찬가지로 기타 성조에 비해 비교적 짧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入聲韻尾는 中國語에서는 韓國語에서는 無聲破裂音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자연히 “促急”하다는 성질을 지닌다. 설사 入聲韻尾의 音節이 平聲, 上聲, 혹은 去聲과 음높이가 서로 같다 하더라도 그 음이 入聲韻尾의 성질상 음의 길이에 있어서는 같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양국의 入聲 처리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韓國人은 어음의 장단보다는 어음의 음높이와 굴곡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中國에서는 平聲, 上聲 혹은 去聲과 入聲韻尾 音節의 語音은 그 어음 길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등할 수 없으므로 인해 어음의 낮았이나 굴곡을 무시하고 入聲韻尾의 모든 음절을 入聲이라는 하나의 聲調로 歸納시킨 것이라고 본다.

13) 拙稿, 《15, 16世紀朝漢對音研究》, 2000년, 北京大學 博士論文

V. 現代漢語 方言의 入聲

悠久한 세월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四聲說”은 지금껏 별다른 의심없이 入聲을 平, 上, 去聲에 對立하는 독립된 聲調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入聲에 대한 이러한 認識은 中國 각 方言에서의 聲調分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中國의 傳統 音韻學에서 말하는 入聲은 中古漢語로부터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 現代漢語의 각 方言에서는 서로다른 모습으로 발전하였는데, 所謂 말하는 入聲은 現代漢語의 각 方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귀납된다.

첫째, 中古漢語와 마찬가지로 [-p][-t][-k]韻尾를 가지는 方言.

둘째, [-p][-t][-k]韻尾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약화되어 喉塞音 성분인 [-ʔ]에 이른 方言.

셋째, 入聲韻尾는 소실되었으나 平, 上, 去聲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聲調를 이루는 方言.

넷째, 완전히 陰聲韻화하여 陰聲韻의 聲調에 편입된 方言.

이 중 古代 入聲韻尾[-p][-t][-k]를 모두 保有하고 있는 대표적인 方言으로 廣州話와 陽江話를 들 수 있다. 그중 廣州話의 성조는 陰平, 陽平, 陰上, 陽上, 陰去, 陽去, 上陰入, 下陰入, 陽入 등 9개의 聲調를 이루고 있으며, 陽江話의 聲調는 陰平, 陽平, 上聲, 陰去, 陽去, 上陰入, 下陰入, 上陽入, 下陽入 등 9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각 聲調의 음높이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廣州話

	平	上	去	入	
				上	下
陰	55 혹은 53	35	33	5	33
陽	21	13	22	2 와 22	

2. 陽江話

	平	上	去	入	
				上	下
陰	33	21	24	24	21
陽	43		54	54	43

음높이(音高)의 차이에 따라 聲調를 재귀납시킨다면 廣州話와 陽江話의 聲調

체계는 현재보다 훨씬 단순해진다. 廣州話의 上陰入(5), 下陰入(33), 陽入(22)은 각각 陰平(55), 陰去(33), 陽去(22)에 각각 귀납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廣州話의 聲調는 9개가 아닌 6개가 된다. 또한 陽江話에서 上陰入(24), 下陰入(21), 上陽入(54), 下陽入(43)은 각각 陰去(24), 上聲(21), 陽去(54), 陽平(43)에 각각 귀납시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5개의 聲調가 된다. 이렇듯 廣州話와 陽江話의 入聲과 기타 平, 上, 去聲과의 차이점은 바로 음높이가 아닌 韻尾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廣州話와 陽江話의 入聲들은 獨立된 聲調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音聲實驗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聲調의 本質이 語音의 高低와 屈曲에 있음이 밝혀진 뒤에도, 聲調의 性質을 이야기 할 때 語音의 長短은 계속해서 聲調의 範疇 속에서 擧論되어 왔다. 이는 전통적으로 독립된 聲調로 인식되어오던 入聲을 염두해 두거나 現代漢語에서 入聲을 제외한 聲調에서도 그 高低升降에 따라 音節에 長短의 구별이 생겨남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入聲을 促聲이라 하고 平, 上, 去聲을 舒聲이라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入聲과 平, 上, 去聲의 대립을 語音의 長短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入聲을 聲調로 인정한 다음의 결과요, 이는 聲調간의 對立이 아니고 入聲韻이 陰聲韻이나 陽聲韻에 대립하는 韻尾간의 促과 舒의 차이인 것이다. 또한 現代 標準 中國語 普通話에서도 聲調에 따라 音節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上聲이 제일 길고, 陽平聲이 두 번째로 길고, 陰平聲이 그 다음으로 길며, 상대적으로 去聲의 音節 길이가 가장 짧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語音의 長短은 發音時 각 聲調의 性質 즉, 어음의 高低升降에 따라 副次적으로 發生하는 결과이지, 聲調를 決定하는 要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中國語에서 면면히 聲調의 입지를 굳혀온 “入聲”이 聲調의 本質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聲調로 독립시킬 수 없음을 알아보았다. 지면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으로 보다 충실한 研究를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본 論文이 中國語의 역대 聲調 體系와 押韻 등을 研究하는데 一助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참고서목】

- 王力, 《詩經韻讀》(王力文集第六卷), 山東教育出版社, 1986年
袁家驊 等, 《漢語方言概要》, 文字改革出版社, 1989年
《漢語方音字彙》第二版, 文字改革出版社, 1989年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年
《語言學百科詞典》, 上海書辭出版社, 1993年
葛本儀, 《實用中國言語學詞典》, 青島出版社, 1992年
吳宗濟, 《現代漢語語音概要》, 華語教育出版社, 1992年
張斌, 許威漢 主編, 《中國古代語言學資料彙纂》音韻學分冊, 福建人民出版社, 1993年
史存直, 《漢語語音史綱要》, 商務印書館, 1981年
黃群建, 《音韻學概論》, 武漢大學出版社, 1995年
林燾, 王理嘉,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2年
郭錦樺, 《漢語聲調語調簡要與探索》,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3年
宗福邦, 〈論入聲的性質〉, 《音韻學研究》第一輯, 中華書局, 1984年
許寶華, 〈論入聲〉, 《音韻學研究》第一輯, 中華書局, 1984年
김차균, 〈한자어 입성의 성조론적 가치〉, 《나랏말의 소리》, 대학사, 1995년

【증문제요】

四聲之說是南北朝(梁)沈約(441~513)首先提出的, 但從發現聲調到科學地闡明聲調的性質經歷了漫長的過程。由於歷史條件的限制, 古人對聲調性質的認識不可能像現代那麼科學。進入了現代通過聲音實驗等方法已得出決定聲調的主要因素是音高現象, 而音長不是決定聲調的主要因素。儘管已發表了不少文章科學地闡明了聲調的性質, 但在學術界仍然保持傳統的說法把入聲作為聲調, 甚至于在方言中的聲調分類上入聲還作為一個獨立的調類。

中國傳統音韻學所說的入聲, 實際上就是帶-k-p-t等塞音韻尾的韻母結構, 而不能與平上去聲等聲調混為一談。值得注意的是15世紀朝鮮語音學者們對入聲的看法。他們把中國傳統音韻學所稱的入聲分別歸入諺語的平上去三聲, 說“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他們認為入聲是促急的韻尾特徵, 而在音高上可以分別為平上去三聲。

我們認為入聲應該屬於韻母結構的範疇。因此入聲作為聲調的一類是不妥當的。

【주제어】

聲調, 入聲, 入聲韻